

CIS 지역

■ 극동러시아 하바로프스크주 공략, 지금의 최적기

- 인근 연해주에 비해 수출확대 여지 많아
- 중소형 플랜트 및 기계설비 수요증가
- 원자재 및 1차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진출 호기
- 건설업 진출 호기

- 극동 러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하바로프스크주가 현재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진출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일반 제품의 수출확대 뿐만 아니라, 중소형 플랜트 및 기계설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원유, 가스, 목재, 수산물 등 각종 원자재 및 1차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진출이 시급한 실정임.

□ 인근 연해주에 비해 수출확대 여지 많아

- 2003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연해주 수출은 미\$242백만 수준인데 비하여 대 하바로프스크 수출은 미\$28백만에 불과한 실정임.
- 경제구조나 규모가 연해주와 비슷한 하바로프스크에 대한 우리나라 제품 수출규모가 연해주에 비하여 10%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업체들의 진출 노력이 미흡함과 동시에 그만큼 수출확대 여지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 수출확대 유망품목으로는 건축자재, 컴퓨터 모니터 및 주변기기, 보일러, 페인트, 식품가공 및 포장기기, 포장재, 건설 중장비, 중고 버스 및 트럭, 자동차 부품, 사무용 문구류, 의료기기, 인스턴트 식품, 제과류, 식품 소스류, 사무용 가구 등임.

□ 중소형 플랜트 및 기계설비 수요 증가

- 하바로프스크주는 사양산업설비 및 유희중고설비의 대체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고 아울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중소형 플랜트 및 각종 기계설비 진출의 호기로 대두되고 있음.
- 진출 유망분야는 <가방, 피혁, 모자 등의 생산설비>, <현지 특산품(버섯, 수산물, 약초 등) 가공 및 포장설비>, <건축용 벽돌, 블록 및 기와 제조설비>, <철근 콘크리트용 믹서 및 펌프카>, <고급형 유리제작 및 보석, 석재 가공장비>, <간판, 네온사인 등 홍보용 시설 제작설비>, <비닐, PVC, 폴리프로필렌 소비자용 및 산업용 자재 생산설비>, <내외장용 도료생산 및 가공설비>, <플라스틱 압출 기계설비> 등임.

□ 원자재 및 1차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진출 호기

- 하바로프스크주는 원목, 수산자원, 원유 및 가스(향후 매장량 탐사 계획)를 비롯한 각종 지하자원의 풍부한 지역임.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업체들의 투자 진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서울 중부시장에서 하바로프스크주의 와니노 항구에 대규모 수산물공단을 건설하여 각종 수산물 확보를 위한 투자진출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음(10만평의 부지에 100억원을 투자하여 냉동창고와 수산물 가공공장 및 명태덕장 건설).
- 이와 같이 하바로프스크주 정부에서도 수산물 및 원목 가공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인근 중국에서도 원목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투자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 기타 건설업 투자진출 호기

- 현재 하바로프스크주는 낙후된 아파트의 개조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주정부에서도 외국인 건설업체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최근에 우리나라의 계룡건설이 미\$1억에 해당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300세대 입주용)건설 계약을 하바로프스크시와 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음. 앞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도로, 항만의 보수 등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에 건설업체들의 진출이 요구되고 있음.
-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對하바로프스크 일반 제품 수출 확대, 중소형 플랜트 및 설비 수출, 원자재 확보를 위한 투자진출, 건설업 진출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적극적인 진출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또한 지금이 그 최적기라고 판단됨.
- 최근 하바로프스크주의 경제활동이 부쩍 활발해진 배경에는 하바로프스크 시정부나 주정부 관료들이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노력에 있어 적극적이고 개방적인데 특히 기인하고 있음. 인근 일본이나 중국도 이와 같은 현상에 부응하여 최근에 대규모 경제협력 사절단을 하바로프스크주에 파견하면서 원자재 혹은 1차 자원 확보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음.

(문의처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고지찬 jichanko@orgio.net)